

당산고사

멸치잡이를 떠나기 전에 당산고사를 올리며
부르는 소리

자아 당산제를 지극정성으로
잘 모십시오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산님 전에 비나이다.
앞터 당산 서낭님요 뒷터 당산 서낭님요.
두 골목에 서낭대신 그물 걸기 좋은 시에
기도발원을 드리오니 굽어 살펴 주옵소서.
다대포의 어부님네 멸치잡이를 가기 위해
조그만한 배를 모아 그물 한 채를 배에 싣고
부모 형제 처자들을 손을 들어 작별한 후
파도 속으로 헤쳐가니 굽어 살펴 주옵소서
풀어 주소 풀어 주소 모진 악살을 풀어 주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산님 전에 비나이다.
이별 살도 풀어 주고 수재 살도 풀어 주소.
풍랑 살도 막아 주고 화재 살도 막아 주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신님 전에 비나이다.
멸치잡이를 떠나가니 재수 소망을 비나이다.
육지에도 풍년 들고 바다에도 풍년 들어
양 풍년이 겹쳐 들어 부귀영화를 비나이다.
만백성이 풍년 만나 부귀영화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성취를 비나이다.

제1과장 그물싣는소리

해변의 어막에 놓아둔 그물을 어장 해변으로 옮겨
배에 실으면서 부르는 소리

일심으로 배에다

그물을 잘 사려 실읍시더 예!



에 헤이 사리야	에-헤이 사리야	구슬 같은 고치를 쳤네	에-헤이 사리야	황금빛에 맛들거든	에-헤이 사리야
사려 보세 사려 보세	에-헤이 사리야	그 고치를 따 가지고	에-헤이 사리야	첫째 독은 헐어다가	에-헤이 사리야
그물 한 채를 사려 보세	에-헤이 사리야	돌고 물레 실을 뽑아	에-헤이 사리야	나라에다 상납하고	에-헤이 사리야
이 그물을 낼 적에는	에-헤이 사리야	가랑 물레 실을 잣아	에-헤이 사리야	둘째 독은 헐어다가	에-헤이 사리야
어이하여 내었는고	에-헤이 사리야	큰아기 손끝으로	에-헤이 사리야	부모님 전에 봉양하고	에-헤이 사리야
멸치잡이를 가려 하니	에-헤이 사리야	그물 한 채를 내어다가	에-헤이 사리야	셋째 독은 헐어다가	에-헤이 사리야
그물이 없어 못 가겠네	에-헤이 사리야	웃 시울에 우끼를 달고	에-헤이 사리야	형제간에 갈라 먹고	에-헤이 사리야
그물 한 채를 내자하니	에-헤이 사리야	아래 시울에 돌을 달아	에-헤이 사리야	넷째 독은 헐어다가	에-헤이 사리야
명주실이 어디 있소	에-헤이 사리야	그물 한 채 꾸마다가	에-헤이 사리야	이웃간에 노놔 먹지	에-헤이 사리야
뒷동산에 뽕을 심어	에-헤이 사리야	고깃배에 사려 실어	에-헤이 사리야	남은 독은 팔아다가	에-헤이 사리야
앞동산에는 잡실을 지어	에-헤이 사리야	멸치잡이를 떠납시더	에-헤이 사리야	논밭 전지를 많이 사서	에-헤이 사리야
뽕잎으로 밥을 주니	에-헤이 사리야	삼지, 꽁지, 칼치를 두고	에-헤이 사리야	부귀영화를 누려 보세	에-헤이 사리야
무럭무럭 자라나서	에-헤이 사리야	멸치 잡아 무엇하리	에-헤이 사리야	다 실었소. - 예!	에-헤이 사리야
한참 두참 석참 잔 후	에-헤이 사리야	열두 독 젓을 담아	에-헤이 사리야		

제2과장 용왕제

고기배에 그물을 옮겨 싣고, 주·과포를
소반에 진설하고 풍어와 무사를 기원하며
용왕제를 지내는 소리

용왕제를 지극 정성으로 잘 모십시오.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전에 비나이다.
동해 바다 용왕님요 서해 바다 용왕님요.
남해 바다 용왕님요 북해 바다 용왕님요.
물밑에는 황실용왕 물위에는 청실용왕
청실 황실 용왕제를 간 데마다 순풍 만나
사해 바다 용왕님요 지극 정성 드리오니
다대포의 어부님네 굽어 살펴 주옵소서.
조그만한 조각배에 멸치잡이를 가기 위해
오색 가지 서낭기와 그물 한 채를 내어 싣고
용왕 깃발을 달은 후에

돛대 한 쌍 높이 달고 닻줄은 거둬 실은 후에
부모 형제 처자들을 손 흔들어 작별한 후
풍악 울려 배를 띠우고 만경창파로 들어가니
간 데마다 순풍 만나 무사 태평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 전에 비나이다.
멸치잡이 떠나가니 재수 소망을 비나이다.
육지에는 풍년 들고 바다에는 풍어 들어
바다에는 부귀영화를 비나이다 소원성취를 비나이다

제3과장 그물놓는소리(노젓는소리)

그물을 실은 고깃배를 바다로 노 저어 가면서
그물 놓으며 부르는 소리



이여사 이여~사 고요한데 이여~사
달도 밟고 이여~사 절로 난다 이여~사
메려치 생각 이여~사 용왕님네 이여~사
동해 바다 이여~사 용왕님네 이여~사
서해 바다 이여~사 용왕님네 이여~사
남해 바다 이여~사 용왕님네 이여~사
사해 바다 이여~사 용왕님네 이여~사
용왕님의 이여~사 은덕으로 이여~사
이 그물을 이여~사 놓기들랑 이여~사
재수 소망 이여~사 점지나 하소 이여~사
메려치 만선 이여~사 시켜나 주소 이여~사
물색 좋다 이여~사 도미 등아 이여~사
팔팔 뛰는 이여~사 숭어 등아 이여~사
반짝이는 이여~사 메려치 등아 이여~사
넓적하다 이여~사 광어 등아 이여~사
우리 후리에 이여~사 다 들어오소 이여~사
화조월석 이여~사 오는 춘풍 이여~사
누 힘으로 이여~사 막을소냐 이여~사
바람아 동풍아 이여~사 불지를 말아라 이여~사
오는 메려치 이여~사 되돌아간다 이여~사
뒷동산에 이여~사 진달래는 이여~사
만발하고 이여~사

다대포라 이여~사 앞바다에 이여~사
메려치가 이여~사 풍년일세 이여~사
어기여차 이여~사 저어나 주소 이여~사
화조월석 이여~사 오는 춘풍 이여~사
누 힘으로 이여~사 막을소냐 이여~사
객사 지동 이여~사 꽈 벌어진 데는 이여~사
왕거미줄이 이여~사 제격이요 이여~사
선주 선원들 이여~사 벌어진 데는 이여~사
메려치가 이여~사 제격이다 이여~사
우리 어부들 이여~사 벌어진 데는 이여~사
술과 담배가 이여~사 제격이요 이여~사
우리 후리에 이여~사 다 들어오소 이여~사
화조월석 이여~사 오는 춘풍 이여~사
누 힘으로 이여~사 막을소냐 이여~사
바람아 동풍아 이여~사 불지를 말아라 이여~사
오는 메려치 이여~사 되돌아간다 이여~사
뒷동산에 이여~사 진달래는 이여~사
만발하고 이여~사

제4과장 그물당기는소리(후리소리)

수십명의 어부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두모여 해변에서 그물의 벼릿줄을 당기면서 부르는 소리

메려치가 많이 들었어니 땅겨 보입시더 예!

어기여차 당겨나 주소
용왕님의 은덕으로
메려치 풍년이 돌아왔네
산은 첨첨 천봉이요
물은 잔잔 백옥인데
우리 다대포 꽃이 피네
꽃 피고 봄이 오니
메려치 풍년이 아닐소나
십오야 둥근 달이
삼경인들 변할소냐
똘똘 뭉친 우리 어부
일구월심 변할소냐
만경창파 푸른 물에
메려치 폐가 몰려 오네
철 따라서 오는 메려치를
항우인들 막을소냐
춘하추동 사시절에
봄 가을이 제일일세
푸릇푸릇 봄배추는
찬 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어기여차 당겨나 주소
어기여차 당겨나 주소
어기여차 당겨나 주소
장동 장비 유현덕은
조자룡 오기만 기다린다
다대포라 어부들은
메려치 오기만 기다린다
어젯날에 없던 메려치가
오늘날에 풍년일세
여보시오 어부네들
부귀영화를 탐하지 말소
고대광실 부러 마소
오막살이 단칸이라도
태평성대가 비친다네
부지런히 일을 해서
나라 상납하연 후에
나라 부강하연 후에
태평성대를 누려 보세
어기여차 당겨나 주소
어기여차 당겨나 주소
자- 그물 다 땅겼으니
불통을 조읍시다.

제5과장 그물터는소리(산자소리)

후리질 하여 그물을 해변까지 끌어다 놓고 걸린 멸치를 가운데로 모으기 위해 그물을 조으면서 부르는 소리



에-산자	에-산자	산자로다	에-산자
많이도 들었구나	에-산자	오뉴월 삼복더위에	에-산자
황소 봉알같이	에-산자	들어졌구나	에-산자
에-산자	에-산자		
고래등 같이	에-산자	등등 뗇다	에-산자
독산 이방우 같이	에-산자	쩍 벌어졌구나	에-산자
에 산자 산이야	에-산자		
반갑도다	에-산자	이 메려치야	에-산자
어데서 놀다가	에-산자	이제사 왔나	에-산자
기장 바다에서	에-산자	놀다 왔나	에-산자
대마도 바다에서	에-산자	놀다 왔나	에-산자
학수 고대	에-산자	기다린 메려치	에-산자
오늘날에	에-산자	당도 하였네	에-산자
에-산이야	에-산자		
무쇠같은	에-산자	내 동무들아	에-산자
팔다리에	에-산자	힘을 주어서	에-산자

그물 많이 잡고	에-산자	앞을 숙였다	에-산자
뒤로 넘어가면	에-산자	쪼아나 주소	에-산자
에-산자	에-산자		
이 산자가	에-산자	누 산자고	에-산자
강원도 바다에	에-산자	명태 어장에	에-산자
산자도 아니요	에-산자		
포항 바다	에-산자	청어 어장에	에-산자
산자도 아니요	에-산자		
물 맑고	에-산자	인심 좋은	에-산자
우리 다대포	에-산자	후리 어장에	에-산자
메려치를	에-산자	많이 잡아	에-산자
불통 쪘으는	에-산자	산자로다	에-산자
에-산이야	에-산자		
너무나 쪘으다가	에-산자	불통이 터지면	에-산자
고생한 것이	에-산자	허사가 돼요	에-산자
그만 쪘으고	에-산자	메려치를 펍시다.	에-산자

제6과장 가래소리

그물을 털어 한가운데로 모은 멸치를 가래로 퍼서 아낙네의 대 소쿠리에 담아 후리막에 있는 저장통에 운반 하면서 부르는 소리



어-녕청 가래로다	어-녕청 가래로다	양류색이 사사록하니	어-녕청 가래로다	부모 봉양 안할소나	어-녕청 가래로다
이 가래가 누 가랜고	어-녕청 가래로다	오류존이 다대포요	어-녕청 가래로다	어화 청춘 소년들은	어-녕청 가래로다
다대포 침사의 가래로다	어-녕청 가래로다	무정세월 한 허리를	어-녕청 가래로다	백발 보고 팔세 마라	어-녕청 가래로다
이 가래가 누 가랜고	어-녕청 가래로다	여루하야 지나가	어-녕청 가래로다	우리도 엊그제 소년이더니	어-녕청 가래로다
한 선주의 가래로다	어-녕청 가래로다	양류사로 매어 놓고	어-녕청 가래로다	오늘 백날 잠깐 일세	어-녕청 가래로다
용왕님의 은덕으로	어-녕청 가래로다	우리 어부는 가래질한다	어-녕청 가래로다	어젯날에 메려치가	어-녕청 가래로다
메려치 풍년이 되었구나	어-녕청 가래로다	이화 도화 만별하고	어-녕청 가래로다	오늘 날에 풍년일세	어-녕청 가래로다
십오야 둥근 달은	어-녕청 가래로다	행화 방초 휘날리는데	어-녕청 가래로다	메려치를 많이 잡았으니	어-녕청 가래로다
삼경인들 변할소냐	어-녕청 가래로다	메려치는 풍년일세	어-녕청 가래로다	님도 보고 뽕도 딸 견	어-녕청 가래로다
똘똘 뭉친 우리 어부	어-녕청 가래로다	값싸고 맛 좋은 메려치를	어-녕청 가래로다	술밥 간에 많이 먹고	어-녕청 가래로다
일구월심 변할소냐	어-녕청 가래로다	있을 적에 사들 가소	어-녕청 가래로다	겸사겸사 잘 놀아 보세	어-녕청 가래로다
양류색이 천만사인데	어-녕청 가래로다	이 메려치를 팔아다가	어-녕청 가래로다	어-어 넝청 가래로다	
오는 춘풍 막을소나	어-녕청 가래로다	나라 상납 하연 후에	어-녕청 가래로다		

제7과장 풍어소리

모든 작업을 마치고 나면 선주가 마련한 술과 안주를 먹고 동네 사람 모두 모여 캐지나칭칭 소리를 부르며 풍어를 기뻐 하면서 부르는 소리



캐지나 칭칭나네	캐지나 칭칭나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캐지나 칭칭나네.
이수강변 백로 가자	캐지나 칭칭나네.
청천 하늘에 잔 별도 많고	캐지나 칭칭나네.
시냇가에는 자갈도 많다	캐지나 칭칭나네.
정월이라 대보름날	캐지나 칭칭나네.
달밤에 나온 소년들은	캐지나 칭칭나네.
담교하고 노니는데	캐지나 칭칭나네.
이월이라 한식날은	캐지나 칭칭나네.
나무마다 춘기들고	캐지나 칭칭나네.
가지 가지 순이 난다	캐지나 칭칭나네.
삼월이라 삼진날은	캐지나 칭칭나네.
강남서 나온 제비	캐지나 칭칭나네.
내 왔노라 현신하고	캐지나 칭칭나네.

소상강변 기러기는	캐지나 칭칭나네.
내 가노라 하직한다	캐지나 칭칭나네.
용왕이 주신 복지	캐지나 칭칭나네.
태평 무궁 빛내 보세	캐지나 칭칭나네.
우리 겨레 단결하여	캐지나 칭칭나네.
피땀으로 세운 나라	캐지나 칭칭나네.
너도 나도 건설해서	캐지나 칭칭나네.
억천만년 누려 보세	캐지나 칭칭나네.
칭칭 소리 잘하는 양반은	캐지나 칭칭나네.
만년주로 대접하고	캐지나 칭칭나네.
칭칭소리 못하는 양반은	캐지나 칭칭나네.
탁주 일배 벌주로다	캐지나 칭칭나네.
캐지나 칭칭나네.	